

연구소 소식

「영유아 교육·보육의 국제동향: 지속가능한 정부정책 및 재정지원 방향 모색」 국제세미나 개최

육아정책연구소는 9월 29일(목), 프레지던트 호텔 슈벨트홀에서 ‘영유아 교육·보육의 국제동향: 지속가능한 정부정책 및 재정지원 방향 모색’을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본 세미나는 OECD 국가들의 통계와 사례 비교를 통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영유아 교육·보육 재정 지원 수준에 대한 평가와 향후 지원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오전 세션은 Hana Hertsman 이스라엘 홀론 시(市) 부시장과 고세진 KBS교향악단 사장(前 예루살렘 대학교 총장)의 특별세션 발표로 진행되었고, 이어 오후 세션에는 Keiichi OGAWA 교수(일본 코베대학), Mikiko Tabu 교수(일본 세이토쿠대학), 김나영 부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Simone Bloem 박사(독일 유소년연구소), Megan Blaxland 박사(호주 뉴사우스웨일즈대학) 등이 주제 발표를 하였다. 발표에 이어 김진영 교수(건국대), 이채정 사업평가관(국회예산정책처), 이영욱 박사(한국개발연구원), 김창환 본부장(한국교육개발원 교육조사통계연구본부) 등이 토론에 나섰다.



제5차 CIFA 국제 심포지엄 공동 개최

육아정책연구소는 지난 11월 4일(금), 한국가족관계학회, 아시아 가족기관협회(Consortium of Institutes on Family in the Asian Region)와 공동으로 「Asian Families: Change and Consistency」라는 주제의 국제 심포지엄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하고 'Parenting and Policies for Young Children in Korea'라는 주제로 발표 및 토론 세션을 가졌다. 본 심포지엄은 여러 아시아 국가들이 참여하여 가족관

계 변화와 추이에 대한 이론과 정책을 비교하고, 향후 실천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육아정책연구소 세션에서는 우리나라의 양육과 육아정책에 대한 주제로, 문무경 국제연구협력실장의 진행하에 도남희 기초연구·통계팀장, 이윤진 연구위원, 김길숙 부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하였다. 발표에 이어 Micy Lui(홍콩 특별행정구 사회복지 수석 담당관)와 Kinuyo Kurokawa 교수(일본 나루토교육대학교)의 토론이 이루어졌고, 열띤 질의응답으로 세션을 마무리하였다.



제1-2차 출산·육아문화 개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육아정책연구소는 11월 21일(월), 11월 28일(월), 두 차례에 걸쳐 제1-2차 출산·육아문화 개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출산수준 제고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정책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하에, 제1차 간담회에서는 조복희 경희대 명예교수, 정미라 가천대 교수를 비롯한 8인의 유관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제2차 간담회에서는 손승영 동덕여대 여성학과 교수,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를 비롯한 경제, 사회복지, 여성 분야의 전문가 5인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제7회 한국아동패널 국제학술대회 개최

육아정책연구소는 11월 24일(목)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아동발달의 종단적 접근과 국제적 흐름(Global Approach to Longitudinal Study on Child Development)」이라는 주제로 한국아동패널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우남희 소장의 환영사와 박경자 한국아동학회장의 축사와 함께 영국의 대표적 종단연구인 EPPSE Study 책임자인 캐시 실바(Kathy Sylva) 옥스퍼드 대학 교수는 “The longitudinal

effects of preschool education on children's development: evidence from the English EPPSE study”를 주제로, 독일 유소년연구소(German Youth Institute: DJI)의 베른하르트 칼리키(Bernhard Kalicki) 소장은 “Ongoing reforms of the German ECEC System: The role of longitudinal studies”



를 주제로 독일의 LBS family study와 National Educational Panel Study(NEPS) 사례를 발표하였다. 오후 특별강연에서는 아동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육아정책연구소의 김나영 부연구위원이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의 시간 정책 필요 결정 요인 분석”, 서울 아산병원 홍수중 교수는 한국아동패널조사를 통한 소아 알레르기질환 연구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어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활용한 학술논문발표 세션에서는 아동의 문제행동, 아동의 건강, 아동의 행복 및 사회적 능력, 종단적 접근 등 4개의 주제로 나누어 발표가 진행되었다. 각 주제별로 3개의 연구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이종희 교수(동덕여대), 이미화 기획조정본부장(육아정책연구소), 최인수 교수(성균관대), 박은혜 교수(이화여대)가 각 주제 세션을 진행하였다.

육아정책연구소-독일 유소년연구소 업무협약(MOU) 체결

육아정책연구소(소장 우남희)는 2016년 11월 25일(금) 육아정책연구소 대회의실에서 독일 유소년연구소(German Youth Institute: DJI) (소장 Bernhard Kalicki)와 상호발전과 활발한 국제 연구 및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육아정책연구소와 독일



유소년연구소가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영유아 보육·교육 연구에 대한 국제적 정보와 경험 구축에 공동 협력하고자 추진되었다. 양 기관은 앞으로 상호 교류협력을 통해 △공동 연구 및 학회 추진, △양 기관의 연구진 교류 및 양성, △OECD 네트워크를 통한 지속적인 협업, △보고서 및 저널 출판 관련 상호 협력을 함께 추진하여 영유아

보육·교육 관련 사회적·국가적 연구를 보다 활발히 이어나갈 계획이다. 양 기관의 협력 관계는 향후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국제적 정보교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육아정책연구소-인도네시아 교육부 정책세미나 개최

육아정책연구소는 지난 12월 6일 (화) 연구소 4층 대회의실에서 인도네시아 교육부 인사들과 함께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Quality ECCE with Family and Community」를 주제로, 스파르조(Mr. Suparjo), 아구스 프라노토 바스키(Mr. Agus Pranoto Basuki) 등 인도네시아 교육부 관계자와 숙명여자대학교 서영숙 교수 등이 참석하였다. 문무경 국제연구협력실장의 사회로 진행된 본 세미나는 우남희 소장이 “Integration of ECEC in Korea”라는 주제로, 권미경 육아정책연구소장이 “Strategy to Open ECEC toward Family and Community: Case study of ‘Open Child Care Center’ Policy”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발표 이후 인도네시아 교육부 관계자들과 양국의 영유아 보육정책 및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활발한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육아정책연구소-재외동포재단 업무협약(MOU) 체결

육아정책연구소(소장 우남희)는 2016년 12월 7일(수) 재외동포재단 대회의실에서 재외동포재단(이사장 주철기)과 상호발전 및 재외동포의 교육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재외동포가정의 영유아 양육 관련 연구 및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육아정책연구소와 재외동포의 글로벌 한민족공동체 구현의 중심기관인 재외동포재단이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양 기관이 보유한 네트워크와 자원 활용을 통해 재외동포 교육 인프라 구축에 공동 협력하고자 추진되었다. 양 기관은 앞으로 상호 교류협력을 통해 △영유아 담당 교원 및 학부모 대상 연수 프로그램 지원 등 한글학교 교원의 교수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 지원,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자문, △기타 연구 및 사업 관련 상호 협력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16년 제2차 육아선진화 포럼 개최

육아정책연구소는 12월 13일(화) 외교센터 12층 THE MOST에서 2016년 제2차 육아선진화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범부처 차원에서 저출산 극복과 건강한 가정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으로 ‘문화’에 주목하고 있음에 착안하여 “한국의 출산·육아문화 진단과 쟁점”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주제발표로, 본 연구소 문무경 국제연구협력실장은 ‘한국인의 부모됨 의식과 자녀양육관’을, 권미경 육아정책연구실장은 ‘함께하는 육아문화 조성을 위한 지원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어서 지정토론에서는 경남대학교 제경숙 교수가 좌장을 맡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홍승아 실장, 사단법인 함께하는아버지들 김혜준 대표, 강남대학교 김수완 교수, 명지대학교 우석진 교수가 참여하였다. 저출산이 지속되는 시대에 우리의 출산과 육아는 어떤 문화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진단하고, 향후 선진화된 출산 육아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진지하고 발전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제2차 어린이 안전포럼 개최

육아정책연구소는 12월 15일 (목) 외교센터 3층 육아정책연구소 세미나실에서 「제2차 어린이 안전포럼」을 개최하였다. 지난해 1차 포럼에 이어 개최된 본 포럼은 사회적으로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아동학대’를 주제로 육아정책연구소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2016년 협동 연구를 수행한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였다. 김은영 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이 가정과 기관에서의 영유아 학대 인식 실태와 개선 방안을, 전영실 선임연구위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영유아 학대 특성 및 피해자 보호지원방안을, 장화정 관장(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영유아 학대 현황 분석 및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에 대하여 주제 발표하였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최혜영 교수(창원대 가족복지학과), 안정은 장학관(교육부 유아





소 식 마 당

교육정책과), 박현선 교수(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 김은정 소장(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 양진혁 사무관(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류승표 국장(어린이집공제회)의 토론이 이어졌다.